

8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경기모멘텀 부활..다우 1.3%↑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사흘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음. S&P 500 지수는 1,000선을 다시 회복했음. 주택거래량과 교역규모 증가, 여기에서 경제활동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힌 미 연준의 `코멘트`가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20.16포인트(1.3%) 오른 9,361.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99포인트(1.47%) 상승한 1,988.7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1.46포인트(1.15%) 오른 1,005.81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지만 경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음. 우선 미국의 2분기 주택가격과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미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음. 또 미국의 지난 6월 수출과 수입이 나란히 증가세를 기록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었음. 아울러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을 통해 "경제활동이 안정화되고, 금융시장은 최근 수주간 더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영향으로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경기회복 기대감에다 달러화 약세까지 겹쳐 국제유가는 하루만에 7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음.
미 연준, 국채매입 10월 종료..금리동결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갖고, 제로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음. 연준은 "(취약한) 경제여건이 `장기간`(extended period)에 걸쳐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exceptionally low rates)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언급, 현수준의 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음. 연준은 다만, 경제상황과 관련해 보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음. 연준은 6월 FOMC에서는 "경제의 위축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경제활동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최근 수개월 간 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문구를 "금융시장의 상황은 최근 수주 동안 더 개선됐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제목	주요 내용
美 6월 수출과 수입 나란히 증가..글로벌 경제 회복 시그널	미 상무부는 미국의 6월 무역적자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전월비 4% 증가한 2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10년래 최저였던 전월 260억달러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287억달러를 예상했던 블룸버그통신 전망치보다는 적었음. 6월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동시에 증가했고 글로벌 리세션이 완화되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美 2분기 집값 안정 징후..전분기 대비 증가세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올 2분기중 거래된 기존주택들의 평균 집값이 싱글하우스 기준으로 17만 4,1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5.6%나 감소한 수치이며, 이같은 하락폭은 1979년 데이터가 집계된 이래 가장 컸음. 은행들의 압류주택들이 집값 하락을 이끌었음. 그러나 2분기에 거래된 주택가격은 올 1분기에 비해서는 4% 가량 증가했고 이는 미국의 집값이 울들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도 해석됨. 특히 주택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음. 지난 2분기 기존주택 거래량은 연간 거래량으로 환산할 경우 476만채를 기록, 1분기보다 3.8% 늘었음.
국제유가 70달러선 회복..증시반등+ 달러약세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하루만에 70달러선대로 다시 올라섰음. 증시 반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난데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호재로 작용했음.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오후 1시44분 현재 배럴당 71센트 상승한 70.16달러로 마감했음.
산업은행, 쌍용차 1,300억 지원 결정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구조조정 비용 1,3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음. 박영태 쌍용차 관리인도 이날 구조조정 비용 지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 산업은행은 13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쌍용차 창원공장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로 했고 차입기간은 1년임.
LS산전·동양종금證, MSCI한국표준지수 승격	LS산전과 동양종금증권이 모간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코리아스탠더드지수에 새롭게 편입되었음. 반면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금호산업과 대한해운은 종전 MSCI코리아스탠더드지수에서 제외되면서 스몰캡지수로 강등되었음. MSCI지수를 산정, 운영하는 MSCI 바라(Barra)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분기 지수 조정 결과를 발표했고 지수는 오는 31일 장 마감후 조정되며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